

“명품 브랜드 줄었는데 입점 공간 없어요”

광주 신세계 ‘남 모를 속앓이’

백화점 1층 절반 가량 터미널편의시설 둑여 법적 제한

글로벌 명품의 국내 매출액이 지난 5년 사이 최고 두 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명품브랜드 입점과 관련, ‘남 모를 속앓이’를 하고 있다.

루이비통으로 대표되는 광주 신세계가 샤넬과 프라다 등 인기 명품 브랜드를 추가 입점시키려 해도 법의 제약에 둑여 유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5년 광주 현지법인으로 문을 연 광주 신세계는 현재까지 백화점 1층 총면적 2314㎡(700평) 중 영업공간을 제외한 991㎡(300평)이 광천터미널편의시설(도시계획시설)로 둑여있다. 또 도시계획시설인 탓에

브랜드 변경에도 법의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매장 1층을 선호하는 명품 브랜드 특성상 공간 활용성이 어려운 광주 신세계는 더 이상 입점할 공간이 없는 것.

광주 신세계는 명품 브랜드 매출에 힘입어 지역 최고 백화점으로 자리매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03년 루이비통 입점과 명품 매장 리뉴얼 후 매출 기준 지역 1위 백화점을 수년째 차지하고 있으며 신세계 내 루이비통 매장은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2번째로 매출이 높다.

광주 신세계 루이비통의 연평균 매출은 300억원에 달하며 한달 평균 3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VIP 고객의 입점 요구도 부쩍 늘었다. “다른 대도시에 있는 명품 브랜드들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라고 말했다.

랜드들을 왜 광주에서는 보기 어렵나?”는 문의가 많다. 그러나 공간 여건이 명품 브랜드 추가 입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광주 신세계 관계자는 “명품 브랜드는 단순한 매출 증가를 넘어 임대 효과와는 물론, 엔터테인먼트 효과까지 불러일으키는 등 고객 서비스에 장점이 많다”며 “국내 백화점들이 명품 브랜드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명품 브랜드가 가져다 주는 효과가 대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주 신세계의 경우, 터미널시설을 이용해 입주한 여건을 16년 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현지 법인으로서 지역에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아쉽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명품 브랜드, 백화점 매출 일등공신”

2014년 KTX 개통 팬

수도권 원정쇼핑 우려

명품 브랜드는 백화점 매출의 일등공신으로 자리매김하지 오래다.

유명 명품 브랜드의 백화점 입점은 단순한 매출 상승뿐만 아니라 상권의 광역화 까지 가능하게 한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루이비통 매장은 광주·전남북 유일 매장으로 목포·여수는 물론, 전주 고객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또 이를 고객의 본관구매 연관 등 백화점 매출의 ‘효

자’ 노릇을 한다.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루이비통 코리아의 지난해 국내 매출은 4273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4% 증가했으며 지난 2006년에 비하면 무려 252%나 상승했다. 이처럼 대중의 명품 브랜드 구매력이나 나이 높아지면서 명품을 구입하기 위한 ‘원정쇼핑’도 증가하고 있다. 지역에 없는 브랜드를 찾아 타 지역

으로 돈을 쓰려 떠난다.

27일 광주 신세계에 따르면 광주 지역 고객들이 명품 쇼핑을 위해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기록한 카드 매출액수가 지난해 기준 27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금 매출까지 포함하면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 신세계 관계자는 “2014년 KTX가 완전개통되면 수도권 원정

쇼핑이 더 가속화 돼 지역자금의 유출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명품 브랜드의 입점 효과는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는 것은 물론,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처럼 국제행사를 앞둔 경우, 브랜드 유치로 백화점의 국제 규모화가 가능해진다는 점까지 내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금감원, 캐피털 45개사 가계대출 제동

대출 비중 큰 2개사엔 “경영계획안 내라”

금융감독원이 카드업계에 이어 할부금융(캐피털)업계의 지나친 봄집 불리기를 억제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비중이 큰 2개

할부금융회사에 대해 가계대출 비중을 낮추는 분기별 경영계획을 마련,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2개사는 전체 자산에서 가계

대출의 비중이 40%를 넘어 업계 평균의 2배를 웃돌았다.

금감원은 또 가계대출 연체율이 8%에 달해 역시 업계 평균의 2배를 넘은 3개 할부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경영계획을 내도록 했다.

금감원이 경영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5개 할부금융회사 가운데 2개는 은행 계열, 2개는 대기업 계열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나머지 40개 할부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오는 3분기 중 내부 성과관리지표를 점검, 지나친 영업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을 적발해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은 할부금융업계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신용 위험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말 할부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원(19.2%)이 증가했다. 담보 대출보다 위험이 큰 신용대출이 1조원(30.3%)이 늘어 가계대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할부금융업계와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신용위험 관리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다.

모범규준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P) 대출의 ‘30% 규제’와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이나 선박금융 등 위험자산이 총 자산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전망이다.

또 동일인 대출한도를 도입하고 회사 규모에 따라 위험관리 규정과 조작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할부금융업계와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신용위험 관리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다. 모범규준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P) 대출의 ‘30% 규제’와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이나 선박금융 등 위험자산이 총 자산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전망이다.

또 동일인 대출한도를 도입하고 회사 규모에 따라 위험관리 규정과 조작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정총

에서는 2010년도 수입지출 결산과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했다. 또 중흥건설 정창선 대표이사가 지역 건설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시장 표장을 받았다.

〈건설협회 광주시회 제공〉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회장 박기영)는 27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운암동 그랑시아웨딩타워 3층 연회장에서 제2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2010년도 수입지출 결산과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했다. 또 중흥건설 정창선 대표이사가 지역 건설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시장 표장을 받았다.

〈건설협회 광주시회 제공〉



국내·글로벌 인턴 모집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는 다음달 3일까지 국내 및 글로벌 인턴사원을 모집한다. 국내 인턴십은 4년제 대학 내년 2월 졸업예정자를, 글로벌 인턴십은 4년제 대학 학사 및 석사과정 중 내년 졸업예정자가 대상이다.

지원 희망자는 기아차 채용 홈페이지(<http://recruit.kia.co.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전형, 2차 인·적성검사, 3차 면접전형을 통해 선발되며 여름방학 기간 6주에 걸쳐 입문 교육과 현장 실습을 받는다. 실습 평가 우수자는 기아차 채용에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법 국민 동전교환운동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다음달 2~31일까지 한 달간 ‘법 국민 동전교환운동’을 실시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이 기간 동안 한국은행과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및 우체국 점포에 동전교환 창구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내 주민은 이 기간 동안 동전교환 창구를 이용해 가장이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동전을 지폐로 교환할 수 있다. 또한 동전교환시 남게되는 1000원 미만의 자투리 동전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동전교환 창구에 마련된 ‘자투리 동전 모금함’에 모아 해당 금융기관이 복지단체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봄에 좋은 민들레차

광주신세계(대표 조창현)가 지하 1층 식품관에서 봄철 건강에 좋은 민들레차와 ‘디이어트’차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옥수수수염차를 선보여 주부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기업들 한-EU FTA 준비 안됐다

광주·전남 80%이상이 특혜관세 못 받아

광주·전남 한EU FTA 대부분 기업

들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관세청이 민주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5일 기준 광주와 전남의 인증수출자 지정기업은 각각 17%(71곳 중 12곳), 19%(42곳 중 8곳)에 불과해 80%이상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전북 54%(146곳 중 79곳)과 울산 45%(73곳 중 33곳)은 어느 정도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전남의 80%에 달하는 기업들이 지금 한EU FTA를 발효되더라도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EU FTA는 다른 FTA와 달리 EU지역으로 건당 6000유로이상 수출 시 수출기업은 ‘원산지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로 지정되어야

만 대상국에서 FTA 특혜세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주선 의원은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못하면 FTA를 체결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준비 없이 한EU FTA가 발효되게 되면 EU제품은 무관세로 국내에 수입돼 국내 경쟁력이 높아지는 반면 우리 기업 제품 경쟁력은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제조업 체감경기 8개월만에 최고치

기업들의 체감경기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8개월만에 최

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내놓은 ‘4월 기업

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제조

업의 이번 달 업황BSI는 전월보다 5

포인트가 오른 98로 지난해 9월 88 이

후 가장 높았다.

비제조업 역시 4월 업황BSI가 전

월보다 5포인트 상승한 85를 기록하

면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BSI는 100을 넘으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나쁘게 보는 기업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다음 달 업황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업황 전망BSI도 제조업과 비제

업에서 모두 상승했다.

/연합뉴스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 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 사회복지, 농업 및 기술직
강의시간 : 09:00 ~ 18:00 (2개월 완성)

9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 사회복지, 농업 및 기술직
강의시간 :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월 평균수강인 개강

9급 문제풀이

강의시간 : 09:00 ~ 19:20 (2개월 완성)
노령진 유명강사진 출출강!

법원/ 검찰직

강의시간 : 09:00 ~ 22:00 (3개월 완성)<br